

職制규정등 개정

- 9月 7日 理事會서 통과 -

國立公園管理公團 이사회는 지난 9月 7日 하오 3시 회의실에서 직제규정개정, 회계규정개정, '88추경예산에 대한 안건을 논의 했다. 이날 논의된 가운데 직제규정 개정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면 공단발족 이후 추가지정된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국립공원의 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미비점을 보완, 공원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운영부의 홍보과를 홍보실로 승격시켜 이사장직속으로, 개정하는등 조정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직제 개정

- 기획부 특수사업개발과→사업개발과.
- 시설부 계획과→시설계획과
- // 시설과→시설 1과
- // 조사과→시설 2과
- 감사과→감사실
- 속리산동부를 서부에 통합(용화분소 운영)
- 가야산북부를 남부에 통합(백운동 분소 운영)
- 4개 사무소 신설

-소백산 북부(2급소장)

-소백산 남부(//)

-월출산 (//)

-변산반도 (//)

▲ 인원증원

-관리직 : 14명(북한산 9, 소백산 10, 월출산 5, 변산반도 5, 기존공원 15)

-운영직 : 69명(북한산 41, 소백산 14, 월출산 6, 변산반도 10, 기존공원 2)

-업무보조직(타자) : 23명(각사무소당 1명)

올림픽맛이 특별대책

국립공원관리공단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손님들에게 수려한 우리의 금수강산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기 위해 깨끗하고 조용한 공원, 아름답고 친절한 공원, 다시 찾는 한국의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특별대책을 마련

하였다.

◇ 자원봉사자 선정

외국 관광객이 국립공원을 탐방할 경우 이들을 안내할 수 있도록 외국어 회화 가능한 대학생, 중고교교사등 자원봉사자를 국립공원 명예관리인으로 임명. 공원사무소별로 1~2명씩 배치 근무케 하여 외국인이 국립공원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영어 73명, 일어 11명, 독일어 2명, 중국어 2명 등 88명을 선정하였다.

◇ 국립공원 안내 팜플렛 제작배포.

북한산, 설악산, 계룡산, 속리산등 5개 국립공원을 소개하는 안내팜플렛을 각 공원별로 제작하여 올림픽조직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립공원협회, 서울시청의 종합안내센터, 서울시내 주요호텔에 비치케 하였다. 또한 공원별 사무소, 안내소등은 물론 제한외국공관에도 배부하였다.

이번에 제작한 팜플렛은 한글과 영문으로 함께 병기하여 내국인은 물론 국립공원을 찾는 외국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줄것이다.

◇ 국립공원내 친절및 청결 교육.

국립공원내의 상가에서 탐방객에게 친절과 상도의를 몸소 실천하여 주도록 관리공단 이사장의 당부의 말씀을 지난 4月和 8月두차례에 걸쳐 12,000여통의 안내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하고, 특히 혐오식품의 판매금지와 바가지 요금 근절, 위생환경 청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외국인이 탐방시 불편한 인상을 받지 않도록 계도하였다.

◇ 등산로 및 안내판등 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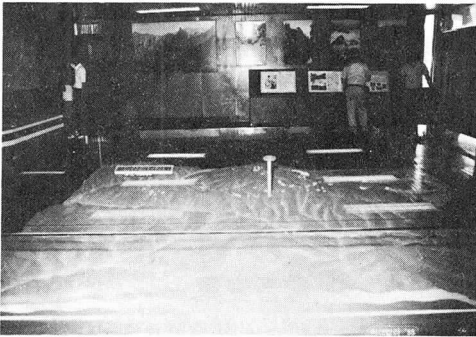
금년도에 13억원을 투입하여 등산로 정비160km, 화장실 28동, 안내표지판 133개를 영문과 함께 표기해 설치하였다. 또한 각 계곡과 등산로 주변을 연인원 3만여명을 동원하여 9천여톤의 쓰레기를 청소하였으며, 매월 호돌이의 날과 주말을 자연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전직원이 참여 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

인등 대대적인 자연정화운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하여 점검카드를 만들어 매일 점검 하고있다.

◇ 雪嶽山, 智異山 管理事務所에

Visitor Center 설치

설악산과 지리산에 지난 7월 탐방객 안내소(Visitor Center)를 설치하여 공원내의 동·식물자원소개 및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탐방객의편의를 돕고 있다.



설악산 Visitor Center.

高山地帶 쓰레기 헬기로

國立公園管理公團은 人力으로 下山이 어려운 高山지대의 쓰레기를 헬기를 動員하여 지난 9월 7日 月岳山 靈峰지역쓰레기 약 3t을 수거한바 있으며 10日에는 智異山 天王峰, 장터목地域 쓰레기 20t을 하산했다.

18個 國立公園(月出山, 邊山제외)의 탐방객은 연간 약 2,500萬명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量은 14,000여t에 달해 지난해에도 80여t의 고산지대 쓰레기를 헬기로 下山한바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가입 국내서 7번째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해 12月 4日 IUCN(Inter-

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에 가입 신청을 내 지난 6月 제25차 정기이사회에 통과 됨으로써 정부회원 자격으로 가입됨으로써 국내에서는 환경청(1985)에 이어 7번째로 가입이 결정됐다.

▲ IUCN현황

○ 創立 : 1948年 10月 파리에서 조직, 本部를 스위스 Morges市에 設置, UNESCO, FAO, WWF, UNEP등과 긴밀한 관련.

○ 목적 : 생태교육, 환경계획과 정책, 국립공원의 효과적인 관리방안의 연구와 국제적 협력, 희귀동·식물의 멸종위기방지 및 번식에 관한 연구와 국제간의 협력

○ 會議

• 총회 : 정기총회 3年마다 정부기관 가맹국에서 개최.

• 各種地域委員會 : 6개 각위원회는 매년 정례 국제회의를 지역별로 개최.

• 世界國立公園會議 : 10年마다 地域別로 순회 개최.

○ 6개 委員會

- ① 生態委員會
- ② 教育 "
- ③ 환경정책법률및 행정위원회
- ④ 國立公園위원회
- ⑤ 야생동·식물 멸종방지위원회.
- ⑥ 환경계획 위원회

○ 우리나라의 가입현황

- 한국자연보존협회(1961)
- 한국국립공원협회(1972)
- 자연보호중앙협의회(1979)
-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1981)
- 내무부 자연보호담당관실(1981)
- 환경청(1985)
- 국립공원관리공단(1988)

月出山, 邊山半島의 관리 사무소 開所준비요원 파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월출산 및 변산반도의 관리 준비를 위해 9월 6일자로 개소준비요원을 파견 발령했다.

▲ 월출산 개소준비요원(소장) : 金功洙(지리산 남부관리사무소), △ 개소준비요원 : 李영석(다도해 해상관리사무소)

▲ 변산반도 개소준비요원(소장) : 蔡奎豐(전변산반도 도립공원관리소장) △ 변산반도 개소준비요원 金種根(속리산 서부관리 사무소) △ 변산반도 개소준비요원 전재익(덕유산 관리사무소).

수기의 누적된 쓰레기 대책, 화장실 부족문제, 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관리직원의 부족문제, 야영장 시설문제, 입장료의 사용처, 진입로 포장문제 등의 대책을 밝혔는데 성수기에는 청소예산을 평소보다 대폭늘리는 문제와 공원을 찾는 탐방객의 계도에 노력하고 화장실은 수세식 30여동이 있지만 간이화장실의 설치로 불편이 없도록 하며 공원관리에 필요한 적정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시키고, 야영장의 시설은 자가용 증가추세를 감안 자동차 야영도 가능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청소, 시설물유지, 관리, 문화재 보수 지원등에 쓰인다고 설명하고, 진입도로 포장 문제에 관해서는 금년에 9억원을 투입하여 동학사와 갑사를 잇는 도로를 개설중에 있어 탐방객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國立公園 管理方向 提示

— 金泓植이사 KBS1 TV서 —

金泓植 國立公園 管理公團 企劃理事는 지난 8월11일 KBS1-TV와이드 정보 700에 출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배경 및 임무, 국립공원의 입장료·문화재관람료와의 관계와 이들의 사용처, 집단시설지구의 시설문제, 국립공원의 청소문제, 올림픽을 대비한 공원관리 방향, 앞으로의 국립공원 관리방향등에 대해 언급 했는데 관리방향으로 “개발과 보전의 균형”유지, 공원관리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진입도로등의 교통시설, 청소년 야영장, 잔디공원, 자연학습장, 심신단련장, 호텔, 수영장등과 위락시설을 현대화 하여 누구나 쉽게, 편하게, 경제적으로 공원을 찾을수 있도록 가꿔나가겠다고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계룡산 국립공원청소·관리책

公州 KBS서 申帆桓計劃課長 밝혀—

國立公園管理公團 申帆桓計劃課長은 지난8월10일 公州KBS라디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여름휴가철 성

지리산 남부관리사무소

— 電番變更 —

7월29日字로 지리산 남부관리사무소의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변경전 (0664)2-4069가 변경후 (0664)781-0353으로 바뀌었다.

北漢山 西部管理事務所

望月寺入口에 新築 移轉

북한산 국립공원서부관리사무소(소장 : 朴贊鎬)는 10월 7日 11時30分 의정부시 虎院洞 226의 現事務所에서 의정부시 호원동 229-104의 새 건물을 준공 이전하게 된다. 이번에 준공될 새 건물은 지하실을 포함한 2층 건물(연면적 89평)로 1층은 사무실로 쓰이고 2층은 비지타 센터겸 회의실로 사용될 예정으로 스마트한 모습을 드러냈다.

한편 公團設立이래 현재까지 사용했던 舊管理所는 의정부시의 특별한 배려로 사용해 왔었다.